

< 요약 >

-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부채에도 장부가격이 아니라 보고시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보고체계(mark-to-market reporting)임
 - 대차대조표가 작성될 때마다 자산은 물론 부채의 시장가치가 측정되어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새롭게 확정되고, 그에 따른 전기 대비 당기 증감이 수익과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구조.
 - 새 회계기준이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보험상품의 위험율과 이자율 등 기초율들이 고정되지 않고 매기마다 변경된다는 것임.
 - 따라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인식되어 오던 보험판매 손익의 대부분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이연신계약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.
-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나타나게 될 단기 변동에 대해 해외 글로벌 보험사 CEO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
 - 보험사 CEO들은 단기형 외부보고체계로의 변화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부보고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보험사 재무성과의 추세와 향후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봄.
 - 따라서 장기의 보장성 보험보다는 단기의 실적배당형 보험의 판매가 선호될 것이어서, 보험의 장기보장 특성과 리스크전가 기능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CEO들의 반응임.
-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